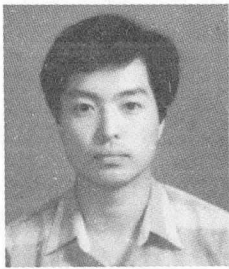




# 일본 국제 종합 축산 박람회를 돌아보고



가 세 현  
((주)카익)

##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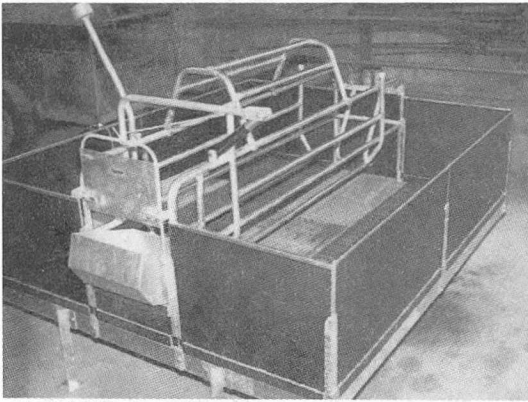
지난 6월4일 일본 나고야시의 경제인 회관 1층에서 개최된 국제 종합 축산 박람회를 돌아보고 이제 양돈 산업도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원 교류와 정보교환의 체계적인 발판으로 시대적 감각에 익숙해져야 하며, 아울러 연구와 개발의 차원에서 양돈산업도 선진화 추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축산 박람회장의 이모저모

가.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분만 케이지  
번식성 향상을 위한 케이지의 개발은 여러가지 특성의 형태로 개발 연구되어 왔다.

최근의 분만케이지는 번식 모돈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분만 모돈을 위한 완벽에 도전하고 있음은 번식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1〉에서 보는바와 같이 본 작품은 기존 케이지와는 달리 보온상과 밑바닥 부분에 전열선이 배선되어 있어 스위치 작동에 의한 가온으로 온돌방의 역할을 응용하였고, 분만시 무간호 분만과 외음부 손상방지 차원의 케이지 문짝 개선과 압사 방지책 설치로 생산된 자돈의 허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한편, 바닥의 요철로 인한 모돈의 미끄럼 방지판을 설치하여 기존 케이지에 비해



〈사진1〉현대적인 분만 케이지

관리자의 편리성 위주가 아닌 번식모돈 및 신생 자돈에 필요한 시설로 고안되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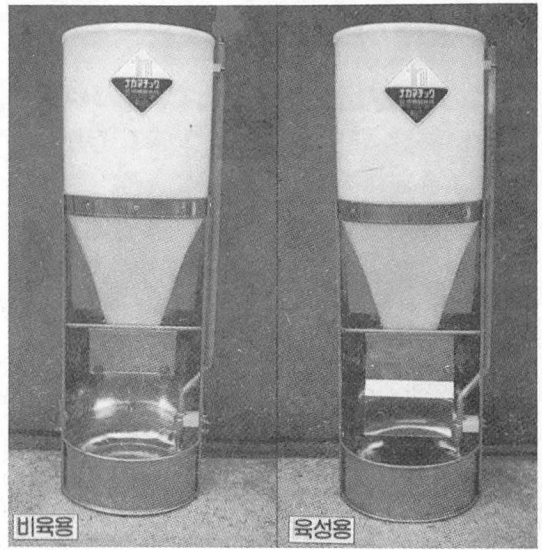
#### 나. 자원 절감과 효율개선의 급이기

과거의 돼지 사육은 잡식성 및 야생의 특성으로 급이기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적당한 용기에 먹이를 급여하는 것으로 돼지를 사육해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현대의 양돈산업은 경제성과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었고 2차적 문제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소 하자는 차원에서 여러형태의 급이기와 급수기가 개발 연구되어 왔다.

〈사진2〉에서 보는바와 같이 현재까지 개발된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급이기가 건식에서 습식으로 변화 되고 있다. 이는 건식에 비해 많은 잇점이 있음을 입증해 준다. 특히 폐수발생 최소화, 사료효율 개선, 분진발생억제 등 많은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의 급이기는 돈방내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단위 면적당 이용성이 낮고 급이된 사료의 신선도 저하와 허실이 많았으나 최근의 습식 급이기는 이런 건식 급이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양돈산업은 급이기의 형태 및 급여 사료의 형태 전환이 예견된다.



〈사진2〉습식급이기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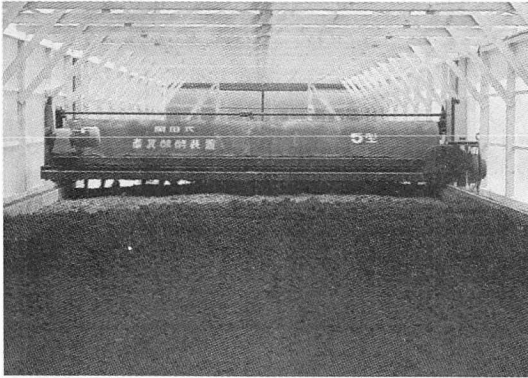
#### 다. 축산 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분뇨처리 기술

얼마전 브라질에서 리오 환경회의가 개최되었다. 산업사회의 고도 성장에 따른 환경문제의 야기는 당연히 발생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이다.

이에 따른 지구촌 전체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표출하는 시점에서 양돈산업의 부산물이자 환경 오염원으로 지적되는 축산 분뇨, 과거의 재래식 화장실을 연상하여 양돈업에 종사한다면 앞으로는 양돈자체를 포기해야 될 것이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듯 이번 박람회의 가장 많은 시선은 분뇨처리 기술 부분이였다.

여러형태의 특성으로 전시되어 특정적인 상품을 소개하기는 어려우나 설치가격, 내구성, 효율 등을 비취볼 때 국내의 영세성 양돈 형태로는 이용성이 제고되는 작품이 대부분이였다.

그러나 〈사진3〉에서 보는바와 같이 축산 부산물은 오염원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이용 형태를 변화 시켜야 하고 향후의 양돈 산업은 완벽에 가까운 분뇨처리 시설로 재활용 자원의 이용 가



〈사진3〉돈분의 건조장면

치를 높일 때 비로소 양돈산업은 안정의 국면을 맞이 하게 될 것이다.

### 3. 결론

이제 양돈 산업은 과거와는 달리 국제경쟁 시대에 돌입되어 신기술, 신소재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야 국제 시장에 견줄수 있다.

좁은 국토에서 수많은 제제로 갈수록 열악한 환경에서 양돈산업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양돈인은 여기서 안주하거나 좌절하기에는 지난날의 노력이 아깝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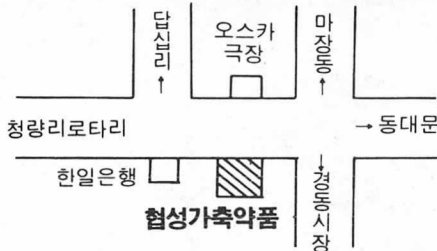
최근 일본의 양돈산업 또한 고도 성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 폐수 문제 등으로 사육두수가 격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한 돈육 대일 수출이 점진적 증가 추세로 있으며,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의 돈육 소비 및 유통 또한 안정적으로 지속됨은 양돈산업도 이제 번식생리와 같은 주기가 없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적정한 가격부여로 위험 부담이 적은 안정적 산업으로 전환되리라 예견된다.

양돈 기술 만큼은 일본을 앞서 있음을 자부하며 지면을 할애해 주신 「월간양돈」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김영**

# 동물약품도매전문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30년 전통의 판매업소  
가축용 예방약, 치료제, 소독제등 일체총판  
주야 전화상담환영 (질병문의 및 판매업소 개설상담)  
지방주문 환영 (신속하고 정확한 우송)



**합성가축약품**

\* 동물약품 도매전문 \*

☎ 131 서울·동대문구 제기1동 654  
(오스카극장 앞)

본사 967-8779, 964-4870  
청량리영업소 965-9778